

‘법사위 양보’ 당내 반발 커지는 민주

김용민 “협치보다 책임정치 우선” 추미애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 “검찰개혁 속도 내야”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정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며 만들었다는 이른바 ‘안전장치’를 두고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나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지는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기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를 두고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에 개혁과제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속성상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전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제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야당이 뒤집어쓴 독주의 족쇄를 벗어난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지키기’ 나선 민주... “윤, 배은망덕·헌정 쿠데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확산 차단... 법적·정치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정권 정통성 문제로 번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자칫 트루킹 사건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짜 책임자’로 문 대통령을 지목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범죄”, “헌정 쿠데타”라고 응탄폭격을 가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등 선거결과 부정 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배은망덕을 넘어 균형 감각이 상실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이라고 하는 선거브로커 전문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김경수란 사람을 이용해서 벌인 사기극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윤 후보의 모습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막무가내 구태정치”라며 “박근혜 씨에게는 송구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문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그의 전박한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어떤 근거도 없는 뇌피셜로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습습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어떤 근거도 없이 대통령 연관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행태”라면서 허위법 특검 연장·재개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 최고위원은 허위법 특검에 대해 “야당의 허위법 특검 추진 당시 뉴라이트 활동 전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을 만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노골적인 대선 불복 발언을 했다. 그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대통령의 여론조작 지시 혹은 관여 주장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헌정 쿠데타”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굳힌듯... 다음달 10일 전후 유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5일 저녁 이준석 대표와의 ‘차별 회동’에서 ‘8월 10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입당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6일 “윤 전 총장이 8월 중 입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당 문제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여온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전날 회동을 통해 정권교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입당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회동 뒤 “(두 사람의 생각이) 대동소이하다”고 밝혔고,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치 경로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단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 입당 관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내부의 정진석, 권성동 등 ‘친윤계’ 의원들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통화에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맞지만,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등록 “나라 바로 세울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 의미를 묻는 말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후보 등록을 한 데 대해서는 “후보 등록 이전에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며 “후보 등록 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출마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저의 정책 비전이나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더 지지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진월동 옛 해태마트~봉선동 대화아파트 도로 개설”

광주의 대표적인 혼잡도로인 남구 서문대로와 백운광장의 교통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6일 “진월동 옛 해태마트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선정된 진월동 옛 해태마트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0.8km 구간에 4차선으로 사업비 491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토부 교통혼잡도로에 선정되어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각각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영덕 의원은 “서문대로는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진월동과 봉선동, 백운광장 일대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폭염·한파 위협 야외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26일 폭염·한파 등 기후 악조건에 위협받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는 1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 중지를 비롯해 휴게시간 조정 등과 더불어, 정부는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